

전통음악 새로운 가능성 무대에 올린다

창립 20주년 아퀴, ‘모래 위에 피는 K-MUSIC’ 28일 전주서학예술극장서 공연

창립 20주년을 맞은 (사)타악연회원 아퀴가 전통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는 융·복합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아퀴(대표 박종대)가 주최·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모래 위에 피는 K-MUSIC’이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전주서학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2026년 공연예술 창작주제(창작공간) 사업’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2006년 창립 이후 20년간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창작과 실험을 이어온 아퀴가 전통음악의 동시대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타악연회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아퀴는 전통의 원형과 정서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무대언어와 퍼포먼스를 접목해 대중과 소통하는 창작공연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모래 위에 피는 K-MUSIC’은 이러한 창작 방향을 한층 확장한 공연이다. 지역 국악단인 문화포럼 나니레와 다한아트 샌드아트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친숙한 사극 속 OST를 전통과 현대의 음악적 감성으로 재해석한다.

공연에서는 ‘대장금’, ‘추노’, ‘왕의 남자’ 등



‘모래 위에 피는 K-MUSIC’ 포스터

한국적인 정서와 미학을 담은 영상 작품의 OST를 중심으로 무대를 구성한다.

문화포럼 나니레의 대금과 가야금, 피리, 아쟁 등 전통악기에 아퀴만의 역동적인 타악 퍼포먼스를 더해 원곡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국악 특유의 색채를 입힌 새로운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샌드아트도 공연의 핵심 요소다. 모래 위에 그려졌다가 사라지는 이미지가 음악의 흐름과 어우러지며 이야기를 완성해 관객들에게 음악을 듣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입체적인 공연 경험을 제공한다.

아퀴는 2006년 창립 이후 대북과 모듬북 등 전통타악의 역동성을 현대적인 공연 형식으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예술 장르와 기술을 접목하며 전통예술의 동시대적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이번 공연 역시 아퀴가 걸어온 20년의 창작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을 오늘의 예술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무대다.

‘모래 위에 피는 K-MUSIC’은 전석 무료이며, 나루컬처에서 공연 상세정보 확인과 예매가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모두의 인문학-사상인의 철학 가드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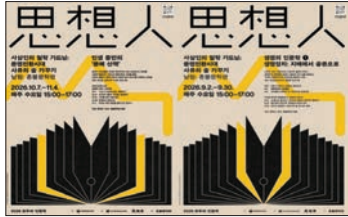
남원시 혼불문화관, 2개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복간 ‘사상계’가 주관하는 ‘2026 모두의 인문학-사상인의 철학 가드닝’의 남원 프로그램이, 시메온 혼불문화관에서 오는 9월부터 중장년 세대가 삶과 생명, 상실과 변화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해 보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냉전시대 한국의 대표적 담론지였던 사상계는 민주화와 민주주의, 민족주의 등 시대의 주요 문제를 다루며 한국 사회의 담론을 이끌었으며, 55년 만에 복간되어 그 정신을 오늘에 이어가고 있다.

전국 6개 연계 시설에서 펼쳐지는 이번 프로젝트는 총 10개 프로그램, 51회에 걸쳐 시민들과 만나며, 혼불문화관에서는 먼저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생명의 인문학 생명정치(지배에서 공존으로)’가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명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생



계와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적 생명체’로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강연과 배서영 몸철학 전문가의 소마틱스 워크숍으로 구성,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인생 중반의 문에 산책’이 열린다.

두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와 신청링크(bit.ly/혼불사상계)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혼불문화관 전화 접수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청소년 국악강좌 ‘틴틴창극교실’ 수료발표회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직무대리 추정구)은 8월 22일, 지리산 소극장에서 수료발표회를 열고, 8월 5일부터 22일까지 초등학교생들이 판소리와 창극을 배우고 직접 무대에 오르는 체험형 국악교육 프로그램인 여름방학 청소년 국악강좌 ‘틴틴창극교실’을 마무리했다.

수료발표회에서는 판소리 주요 바탕인 춘향가·흥보가·수궁가·심청가의 논대목을 하나의 창극으로 엮어 선보였으며, 참가 학생들은

발성·호흡과 장단을 익히고, 각자 맡은 배역에 따라 소리와 대사, 역할별 장면 구성과 무대 동선까지 단계적으로 배우며 창극이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교육에는 ‘틴틴창극교실’을 수료한 뒤 현재 고등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선배들이 멘토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선배 멘토들은 후배들과 함께 소리를 익히고 무대를 준비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등 국악을 매개로 세대



간 배움과 성장을 이어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20회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 성료

부안군은 (사)추담판소리보존회(이사장 김세미)가 주관하는 제20회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지난 22~23일 2일간 부안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판소리를 올곧게 지켜온 명인이자 전통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하신 명장 추담 홍정택 선생의 업적을 선양, 계승하고 우수한 인재 발굴을 위하여 열리는 추담 전국국악경연대회는 판소리, 고법, 기악 등 3개 부문을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총 2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대회 결과 일반부에서는 판소리 대상 안민영씨(국회의장상), 종합 대상 김수완씨(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상), 고법·기악 대상 위예성씨(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등이 수상했으며 학생부에서는 종합대상 김호윤(교육부 장관상) 학생이 영예를 안았다.

이어 일반부 각 부문 최우수상과 신인부, 학생부 각 부문 대상 등 40여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시 어진박물관, 26일 문화가 있는 날 ‘늦더위의 계절’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어진박물관은 오는 26일 8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늦더위의 계절’을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절기인 ‘처서(處暑)’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전통문양 투명부채 만들기와 전통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통문양 투명부채 만들기 체험은 박물관 지하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투호와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은 어진박물관 지하1층 야외마당에서 즐길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자연

고유생물의 서식지

고창 갯벌

전주매일 캠페인

고창갯벌은 곰소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서규조류 생물종을 보인다. 또한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

고창갯벌은 약 194종의 저서규조류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바지락과 동죽이 서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고창갯벌은 10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중 IUCN 적색목록 2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EN등급)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고창갯벌에는 팔갯벌 위에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사질 퇴적체인 셰니어(Chener)가 관찰된다. 셰니어는 자갈, 조립질 모래와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받아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셰니어는 팔갯벌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닷물에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의 동지와 휴식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